

양자기술이 가져올 문명의 두 번째 쿼텀 점프

양자물리에 의해서 인류 문명은 쿼텀 점프를 했다. 물리학은 양자물리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며 양자물리 덕분에 현대화학이 탄생하였고 RNA, DNA를 다루는 생명공학이 시작될 수 있었다. 과학에 기반하여 발전하는 공학도 물론 마찬가지이다.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백년 전에도 있던 것 빼고는 모두 양자물리 덕분에 발명이 되었거나 개선된 것이다. 이같은 문명의 쿼텀 점프는 양자물리가 1900년 태동하고 나서 30년간 형태를 갖추고 나자 일어난 일이다. 최근 30년간 양자정보기술이 발전하여 우리는 이제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일어날 문명의 두 번째 쿼텀 점프를 목격할 시점에 와있다. 이 두 번째 쿼텀점프는 고전컴퓨터가 해결 못하는 일을 순식간에 해내는 양자컴퓨터, 도청이 불가능한 통신, 순간이동 같은 양자기술들이 만들어낼 것이다. 양자기술을 아는 사람에게는 기회가, 모르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온다.